‘개콘’ 시사 풍자로 장기 침체 탈출할까

‘복면까왕’

‘트로트라마’

‘까꿍회장님’ ‘트로트라마’ ‘복면까왕’ 등 새 코너 마련
11일 개편 첫 방송 …주제 단순명료 장점 큰 변화는 글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20년 전통의 개그 프로그램 KBS 2TV ‘개그콘서트’가 2주 결방이라는 강수를 두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개그콘서트’ 제작진과 출연진은 최근 리허설 현장을 공개하고 새 코너 중 4가지를 ‘맛보기’로 선보였다.

박성호 등이 출연하는 ‘까꿍회장님’은 어린 회장님이 된 양비아가 회사 사원들에게 아이 눈높이에 맞는 지시를 내리면서 겪는 좌충우돌 세습기를 그린다. 원래 회장인 박성호는 ‘라이온킹’ 콘셉트로 중간 중간 등장해 정체 모를 아프리카어로 대사를 한다.

안소미, 김태원 등이 나선 ‘트로트라마’는 TV조선에서 큰 히트를 기록한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에서 따온 콘셉트다.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트로트를 선보이고,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대화 중간중간에 노래하는 뮤지컬 형식이 가미된다. 남녀노소 공감할 ‘감동’에 코드를 맞춘 듯 하다.

박진호, 이승환 등이 출연하는 ‘치얼업 보이즈’는 학교 치어리더 동아리를 배경으로 각기 개성 충만한 단원들이 등장해 웃음을 선물한다.

마지막으로 리허설에서 선보인 ‘복면까왕’은 ‘개그콘서트’가 이번 개편에서 지향하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코너이기도 하다.

복면 속에 정체를 숨긴 베테랑 개그맨들이 나서 매주 다른 시사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이는 포맷이다.

첫 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달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룬다. 리허설 과정에서는 반대 측 토론자가 일본 AV(성인용 비디오)를 사례로 들며 일본산 불매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그맨들이 가면 뒤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며 시사 풍자의 부활을 알리는 시도는 좋았지만, 주제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출을 맡은 박형근 PD는 “시사 풍자를 그동안 하기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가볍게 하면 ‘수박 겉핥기’가 될 거 같았다. 깊게 들어가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기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 틀을 깨보고 싶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가 있을 경우 사후 편집과 논의를 통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때 시청률 30%에 근접하며 ‘국민 예능’으로 불렸던 ‘개그콘서트’는 최근 1천회 특집을 계기로 한 선후배 개그맨들의 부흥 노력에도 장기 침체에 빠져 명맥만 잇는 수준이다.

최근 예능,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개그맨들의 고향인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대대적인 개편을 계기로 부활할 수 있을지 방송가에서도 관심이 높다.

타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시사 풍자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전 공개된 정보로만 본다면 ‘복면까왕’의 경우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통쾌함보다 불쾌함이 더 클 수도 있겠다. 특히 풍자는 시의성이 중요한데 그 시기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매주 코너에 녹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는 예전 코너들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트로트라마’는 ‘슈퍼스타 KBS’를 떠오르게 한다”라면서 “다만 코너들이 단순명료해 시청자가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개그콘서트’는 2주 결방 기간 개편 작업을 거쳐 오는 11일 방송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벌새’, 국제영화제 25관왕 대기록

예루살렘국제영화제 최우수 장편데뷔작 수상

29일 국내 개봉

영화 ‘벌새’(사진)가 올해 제36회 예루살렘국제영화제 최우수 장편 데뷔작을 수상했다고 배급사 엣나인필름이 6일 밝혔다.

이로써 ‘벌새’는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 제18회 트라이베카 영화제 최우수 국제 장편영화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촬영상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25관왕을 달성했다.

‘벌새’는 1994년, 거대한 세계 앞에서 방황하는 중학생 은희가 한문 선생 영지를 만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김보라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29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어서 말을 해’ … 입담 센 스타들의 퀴즈 대결

JTBC 13일 첫방송

JTBC는 오는 13일 밤 11시 새 예능 ‘어서 말을 해’를 선보인다고 6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예계에서 말 잘하기로 이름난 MC 전현무, 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정상훈, 김정난, 개그맨 문세윤이 출연해 퀴즈 대결을 벌이고, 진정한 ‘말의 고수’를 가린다.

출연자들은 각자의 소통 능력을 십분 발휘해 말 센스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풀고, 퀴즈를 많이 맞힌 1등은 ‘최고의 말왕’으로 등극해 선물을 받는다. 다양한 유형의 퀴즈를 낼 출제자로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합류한다.

제작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인 말을 주제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며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플랫폼별 다양한 출연자와 함께 펼칠 말 대결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2019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방학특집 안녕 자두야 언더 더 씨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한국인의 밥상 50 2018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기억, 마주서다〉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버 50 빠샤 메카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쉿!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0 특선다큐멘터리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여름특집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09:00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로맨틱 지중해 3부
보라빛 유혹 안탈리아〉
21:30 한국기행
〈여름 한 사발, 냉국기행 3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50 글로벌 특선다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음 7월 7일 丙子)

子 36년생 부자연스럽다. 48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60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72년생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4년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50

丑 37년생 걱정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49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61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73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85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62, 79

寅 38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50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62년생 지금은 급한 형세이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고 볼 일이다. 74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대응하라. 86년생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4, 91

卯 39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51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63년생 성심을 다 해서 노력하면 된다. 75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87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06, 54

辰 40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52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4년생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마당이다. 76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88년생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82, 92

巳 41년생 순식간이니 잘 살펴야 한다. 53년생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다. 65년생 서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니라. 77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89년생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80, 14

午 42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54년생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운세이다. 66년생 일방적이라면 건조해 질 수 있다. 78년생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90년생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하자. 행운의 숫자 : 81, 16

未 43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55년생 단순화 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67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79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91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한 태양이다. 행운의 숫자 : 51, 24

申 44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6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68년생 솔선수범한다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니라. 80년생 피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니 방도를 강구하라. 92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3, 93

酉 45년생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7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81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93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을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02

戌 34년생 관리를 잘 하라. 46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58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70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82년생 알면서도 빠뜨릴 가능성이 높으니 잘 살펴봐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71

亥 35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니라. 47년생 열린 사고로 임해야 무난하게 실행 될 것이다. 59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한다. 71년생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하기 힘이 드니 장고한 후에 판단할 일이다. 83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91,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